

- 본문 말씀 | 창세기 9장 1-7절
- 결단 찬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날마다 그 감격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정지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다시 시작’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 화가 나기도 하는 나를 발견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컴퓨터에서 이 ‘다시 시작’은 꼭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꼬여서 이것을 다시 안정화하기 위해 재시작을 해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부팅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1

절 취 선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퀘스트를 완료하기 직전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회인데 내 캐릭터의 수명이 거의 남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그 게임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게임에도 ‘다시 시작’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요. 방금 말했던 컴퓨터나 게임처럼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서 다행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기도 해요.

2013년에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음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흥행을 했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을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그는 <비긴 어게인>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등장해요. 한때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승승장구했지만 몇 년간 계속된 실패로 깊은 슬럼프에 빠진 상태였어요.

또 여자 주인공으로는 로맨스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 <러브 액츄얼리> 중 유명한 스케치북 고백 장면에 등장했던 키이라 나이틀리에요. <비긴 어게인>에서는 실연의 아픔에 빠진 싱어송라이터로 나와요.

2

두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서로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함께 서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음악 작업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얻어요. 새로운 노래도 만들고, 멋진 음반도 제작해요. 물론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나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동은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놀라움과 기쁨이에요. 그것은 나의 노력과 능력을 넘어서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시작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리 실수했어도, 심지어 큰 죄를 범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질서에 맞게 잘 관리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명령이 잘 지켜졌나요? 아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와 악한 행동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불순종이 이어져 왔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5).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했어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지경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6:7).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세요. 실수나 후회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세상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이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쓸어버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 6:13).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창조하신 땅과 함께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키실 권한과 힘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대로 행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어쩌면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마른하늘에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게 이해는 되지 않아요. 커다란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노아의 가족들과 갖가지 동물들을 태우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후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이윽고 땅에 물이 걷히고 밖으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9:1).

어떤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의 약속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노아에게 허락된 시작의 기회는 그야말로 선물과 같아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 6:8).

분명히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노아는 단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을 뿐이에요(창 6:22).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하고 연약한 우리잖아요.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랄게요. 고난 속에 좌절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요? 무언가로 인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시작’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일어서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삶을 포함한 이 세상에 ‘다시 시작’을 열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노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용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나라가 다시 시작하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